

신흥 메이저 로벤, 자판기 新성장시대를 연다

-캐리어 자판기 사업 인수해 의욕적 출범-



가히 충격적이다 못해 경이롭기까지 한 뉴스 하나가 최근 산업계에 휘몰아쳤다. 그간 자판기 산업계를 주도하던 캐리어 자판기 사업이 매각되어 로벤이 신흥 메이저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로벤이라는 신생업체의 정체도 궁금하지만 캐리어가 왜 자판기 사업을 매각했는지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냉혹한 시장논리에 의해 판도재편이 이루어진 자판기 산업계는 이제 로벤이라는 '태풍의 눈'을 주시하고 있다. 로벤이 과연 침체된 자판기 산업을 구원할 릴리프로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을 지, 그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새로운 로벤의 시대 개막

로벤이 과연 어떤 업체인지 생소해 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도 그럴 만 한 것이 로벤은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었던 업체가 아니라 캐리어 자판기 사업인수를 위해 탄생한 신생법인이기 때문이다.

로벤의 캐리어 자판기 사업 인수는 우여곡절 속에 성사가 되었다. 로벤과 캐리어는 기업 양수도 협상을 1년 여에 걸쳐 진행해 온 것을 알려 줬다. 그런 과정에서 이견차이를 보이던 계약조건에 대해 하나하나 조율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 작업들이 원활이 이루어져 지난 10월 말 사업 양수도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올 11월 중순 최종계약서 승인을 통해 로벤의 캐리어 자판기

사업 인수를 기정사실화 해 버렸다.

이로 인해 캐리어 자판기 사업은 12월 중으로 로벤에 완전 인수가 될 예정이다. 공장설비와 캐리어 직원들의 인수문제도 원활히 일단락되어 로벤이라는 자판기 종합 메이커가 당당히 출범하게 된 것이다. 캐리어 시대는 저물고 바야흐로 새로운 로벤의 시대가 개막되기에 이른 것이다.

캐리어의 선택, 로벤의 야망

지난 98년 LG산전에서 자판기 사업을 인수해 그간 자판기 산업계의 메이저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해오던 캐리어사가 자판기 사업을 매각한 배경이 궁금하지 않을



캐리어가 자판기 사업을 매각하게 된 것은 캐리어 글로벌 본사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캐리어 글로벌 본사는 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리어 리프리지레이션 코리아의 자판기 사업부를 국내 기업 로벤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 없다. 캐리어는 그간 공격적인 영업으로 자판기 시장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해 온 메이저 업체로 지난 2005년 말 삼성광주전자의 자판기 사업을 인수한 롯데기공과 더불어 시장을 양분해 왔다.

이런 캐리어가 자판기 사업을 매각하게 된 것은 캐리어 글로벌 본사의 선택과 집중 전략에 기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캐리어 글로벌 본사는 자사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캐리어 리프리지레이션 코리아의 자판기 사업부를 국내 기업 로벤에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핵심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결정으로 앞으로 캐리어 리프리지레이션 코리아는 상업용/산업용 냉장·냉장기기 제조 판매업에 집중하게 된다. 캐리어의 관계자는 "캐리어 리프리지레이션 코리아는 자판기 전문기업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로벤이 인적 물적 사업역량을 집중하여 해당사업을 훌륭히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한 해당 사업부 직원들이 로벤의 훌륭한 자산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이렇듯 캐리어 글로벌 본사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의 사업 재편은 로벤에게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을 했던 것이다. 로벤의 캐리어 자판기 사업의 인수는 과거 같은 기업 환경 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 할 수 있다. 과거만 해도 기업들은 '규모의 경제'에 집중해 여러 분야로 사업 확대를 통해 외형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경제 트렌드는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기업 환경의 변화를 근거하지 않으면 캐리어 자판기 사업의 매각 이유를 이해하기 힘들다. 그 근거 되는 이유를 간과하고 단지 중소기업 규모인 로벤이 메이저 업체인 캐리어 자판기 사업을 인수했다는 사실 자체만을 봐서는 안 된다. 사업 인수 합병의 가장 기본적인 명제는 지금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대상자를 찾는 것이다. 캐리어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로벤이 보다 핵심역량에 집중하는 전문성을 가진 기업으로 판단했다. 본사의 전략변화로 자판기 사업을 매각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현 자판기 사업환경 하에서는 로벤이야말로 최적의 대상자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 그래서 비록 중소기업 규모인 로벤이 대메이저인 캐리어 자판기 사업을 인수하는 일이 현실화 된 것이다.

어쨌든 시장에서는 중소기업 규모인 로벤이 캐리어 자판기 사업을 인수했다는 사실에 경이로워 하고 있다. 자판기 메이저 업체로의 부상이 이제 중소기업 규모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이같은 현상을 보는 필드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양분이 된다. 시장침체로 인한 산업계의 슬픈 자화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가하면, 이제 자판기 사업은 시장 볼륨에 맞게 중소기업으로 전문화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한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무엇보다 좋은 기회로 보는 적극적인 사업주체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새로운 비전과 열정에 넘치는 전문화된 자판기 종합메이커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산

로벤은 무인서비스 분야의 뉴 글로벌 리더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메이커를 지향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력, 창의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시장개척, 도전적인 인재 등을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다. 기업 비전과 핵심역량으로 볼 때 도전과 혁신정신이 한껏 묻어난다.

업계가 거는 기대가 크다.

로벤의 김준택 사장은 "캐리어 자판기 산업을 로벤이 인수한다고 했을 때 걱정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업체규모가 크다고 사업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전문화된 중소기업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다. 로벤은 자판기 분야로 특화된 역동적인 조직이며 뛰어난 핵심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시장 발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밝혔다.

뛰어난 핵심역량으로 시장 활성화를 주도한다

로벤은 무인서비스 분야의 뉴 글로벌 리더로서 쾌적하고 편리한 인간생활을 위해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종합메이커를 지향하고 있다. 이같은 기업 비전을 실행하기 위해 혁신적인 기술력, 창의적인 마케팅, 공격적인 시장개척, 도전적인 인재 등을 핵심역량으로 삼고 있다. 기업 비전과 핵심역량으로 볼 때 도전과 혁신정신이 한껏 묻어난다.

이러한 로벤의 출범은 기존 자판기 산업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넣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캐리어의 핵심인력들이 인수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되어 자판기 사업의 노하우가 그대로 접목이 되는데다가 적극적인 사업 열정까지 구비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특유의 빠른 의사결정과 적극적인 투자욕도 강점이다. 로벤은 현재의 침체된 자판기 산업을 되살려 新성장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의욕이 높다. 로벤의 출범으로 국내 자판기 산업은 롯데기공과 양강체계가 형성이 된다. 신홍메이

저의 출범을 바라보는 롯데기공도 비상이 걸렸다. 롯데기공은 로벤의 출범을 예의 주시하며 새로운 판도변화에 따른 대책마련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자판기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로벤의 출범을 더 큰 사업의욕을 불태우는 계기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로벤이 물론 시장주도력이 큰 신홍 메이저 업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우리 같은 중소기업 아니냐"면서, "물론 투자여력은 떨어지겠지만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은 시장기회가 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각은 과거 캐리어보다 브랜드 이미지가 약해지는 상황에서 기인한다. 로벤이라는 브랜드가 아직은 별다른 경쟁우위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중소기업도 동등한 조건하에 경쟁해 볼만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벤은 이러한 약점에 대해 충분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택 사장은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모델들을 많이 선보이겠다"면서, "로벤이 하면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빠른 기간 안에 인식시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쳤다.

이제 로벤이 보여줄 적극적인 사업행보에 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신홍 메이저로 신선하고 의욕적인 정책들을 펼치며 자판기 산업의 만연한 불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면 하는 기대가 크다. 로벤에 의해 새롭게 쓰여 질 자판기 산업의 새 역사가 벌써부터 궁급해진다.